

강영안 교수

소나무/A5신/240면/12,000원

최근 강영안 교수(48, 서강대 철학과)가 펴낸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소나무)의 머리말 제목은 “우리가 아직도 칸트를 읽어야 하는 까닭은?”이다. 칸트 사후 동서양에서 생산된 칸트 주석서와 해설서만 열추 헤아려봐도 ‘사태’가 날 지경인데, 아직도 그를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근대의 ‘도덕적 주체’의 탄생을 보여줬다는 데 칸트 도덕철학의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인간이 자연이나 신, 전통, 관습 등의 질서에 종속된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칸트 이후 사태는 역전됩니다. 인간의 실천이성이 이런 질서를 스스로 구성한다고 본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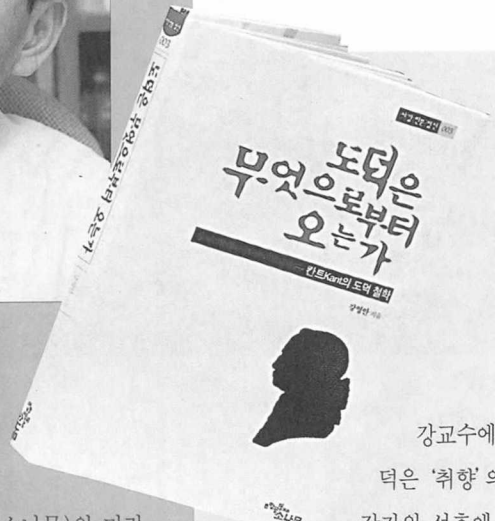
**인간은 자연과 자유 사이에 낀 존재**

칸트의 탁월함은 인간의 양면성을 간파한 데 있다는 게 강교수의 입장이다. 자신 앞에 주어진 질서를 구성할 때 인간은 두가지 상황에 놓인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면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것(도덕법칙)의 부름에 따르는 존재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과 자유 사이에 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연의 상황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따르는 자유의 상황에서 방황합니다. 결국 내적인 욕구(자기애)를 제어하면서 초월적 명령(도덕법칙)에 따를 때 인간의 행위는 선하다는 것이 칸트철학의 요체입니다.”

**“도덕적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펴낸 강영안 교수



강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도덕은 ‘취향’의 문제로 전락했다. 각자의 선호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생활세계를 형성할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칸트는 윤리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성의 명령이라고 갈파합니다. 칸트철학은 기독교 전통을 철학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요청한다면, 칸트는 하느님의 자리에 이성을 세운 거죠.”

강교수는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자유라고 분석한다. 인간의 행위를 자유롭게 만드는 조건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다. 인간이 도덕적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이다.

“도덕철학자로서 칸트의 위대성은 인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확인한 데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을 설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거죠.”

**도덕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

인간의 자유를 도덕성의 근거로 내세운 칸트철학에 중대한 도전이 하나 있다. 악의 문제가 그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근본악을 인정한다. 칸트는 악을 제거하고 평화를 세우도록 인간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심성변

강영안 교수가 칸트 도덕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규명한 저서를 펴냈다. 강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도덕은 취향문제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은 상대주의적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칸트를 지목한다. 인간의 자유를 도덕성의 근거로 내세운 칸트의 도덕철학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화를 통해 감성을 지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고 칸트는 강조한다.

“20세기에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발전에만 따른 악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칸트의 답변은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철학을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난해성이다. 하지만, 강교수가 보기에 칸트는 어느 철학자보다 명석한 글쓰기의 전형이다. 칸트의 난해성은 칸트가 다른 주제의 난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강교수의 설명이다.

“칸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질문하는 이성)에 대해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 자체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철학자죠. 이것이 칸트 철학이 난해한 또 다른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칸트철학은 큰 건물과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도 모두 연결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강교수의 칸트 읽기는 한마디로 ‘공감적 독해’다. 칸트의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오가며 ‘온몸’으로 읽어내는 방식이다. 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강교수는 올해 말쯤 엠마누엘 레비나스 연구서를 펴낼 계획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성과 고통받는 자와의 연대에서 도덕이 나온다고 주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윤리철학자다. — 박천홍 기자